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의 한국판 타당화*

조 아 라 윤 성 근 양 은 주[†]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Dietrich & Kracke, 2009)를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542명의 자료에 기초하여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고 측정도구로서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부모진로행동검사, 부모애착척도, 진로성숙도 검사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관련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뢰도는 적합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원척도의 지지, 간섭, 관여부족의 3요인 구조도 지지되었다. 성차에 따른 다집단 동등성이 지지되었고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간섭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행동검사와 부모애착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본 척도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개입행동을 측정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척도와는 구분되는 차원을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는 지지는 긍정적인 기능을, 관여부족은 부정적인 기능을 하며 간섭은 그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모 진로관련 행동, 타당화,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평균분석

* 본 연구의 일부는 조아라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출판되었음.

본 연구는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E-mail : yange@korea.ac.kr

진로란 한 개인이 생애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김계현, 1995) 진로의 선택은 능력발휘의 기회, 주거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등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일생에서 이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는 진로발달이 구체화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진로인식을 발달시키고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탐색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은 부모이다. 청소년 1,504명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정보제공원에 대해 조사한 청소년상담원(2003)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진로 결정과 진로 계획 시 부모(52.8%)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완성, 김미숙, 2009).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양육태도와 애착에 관한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영향으로 이는 자녀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완성, 김미숙, 2009; Becker, 1964).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주적,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높은 진로성숙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혁분, 2001; 박은혜, 2007) 반면 허용적이거나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는 낮은 진로성숙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혜, 2007).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성숙도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수준이나 진로탐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종운과 강정임(2009)의 연구에서 자녀

가 부모의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Kracke(1997)가 독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대해 개방적, 지지적, 온정적으로 상호작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모 양육행동이 자녀들의 진로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 역시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은 진로성숙도를 높일 뿐 아니라(박효희, 성태제, 2008)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아울러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진로정체감이 공고하고(목경수, 구자경, 2012) 안정된 직업흥미 행동을 보였다(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강한 청소년들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O'Brien, 199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 요인이 영향력 있게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모의 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만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선혜연(2009)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일반적 부모 요인이 중요한 변인이지만,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변화 가능한 변인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청소년 진로 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도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연구동향은 자녀의 진로선택 및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모개입행동과 그 영향에 대한

주제로 변화하고 있다(Phillips, Christopher-Sisk, & Gravino, 2001; Schulthesi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필요시 방향을 정해주거나 지원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의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자녀가 직업적 흥미와 능력, 다양한 직업 선택을 탐색하도록 격려하며, 다양한 경험을 자신의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부모 행동이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hillips, Blustein, Jobin-Davis, & White, 2002). 반면,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활동과 선택을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진로발달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들이 진로준비과정에 있어 더욱 수동적이고 진로선택에 무관심하게 되어 불안정적인 진로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Altman, 1997; Mortimer, Zimmer-Gembeck, Holmes, & Shanahan, 2002; Oechsle, Maschetzke, Rosowski, & Knauf, 2002; Schultheis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진로선택과 관련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지지적일수록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엄영순, 최연실, 2009) 보다 성숙한 진로태도를 보고하였다(이지연, 2013). 또한 부모가 자녀의 적성과 흥미 개발을 위해 긍정적으로 관여할수록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2012).

이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체적인 부모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소수일 뿐 아니라 연구 변인들도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국내 연구자들 역시 부모의 지지와 격려, 도움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을 촉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성취하는데 긍정적인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기대를 하면 오히려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지현, 김계현, 유정이, 황매향, 노경란, 2007).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진로에 대해 보다 밀접한 관여를 하고 자녀들도 부모의 조언이나 기대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선혜연, 2009) 청소년 진로상담에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 진로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구체적 부모개입행동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존에 개발된 부모 진로관련 행동 척도들은 진로관련 부모지지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CRPSS)(Turner, Alliman-Brissett, Lapan, Udipi, & Ergun, 2003), 부모진로행동검사(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PCBC)(Keller & Whiston, 2008),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PCB)(Dietrich & Kracke, 2009)가 있다. Turner 등(2003)이 제작한 진로관련 부모지지척도(CRPSS)는 Bandura(1997)가 제시한 4가지 자기효능감 발달기제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부모가 교육적 혹은 직업적 진로효능감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다. 진로관련 부모지지척도(CRPSS)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 진

로지지의 하위요인을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도구적 조력은 청소년의 진로관련 기술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지지를 의미하며, 진로관련 모델링은 부모가 진로와 관련된 직업 모델이 되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언어적 격려는 청소년들의 교육적·직업적 수행에 대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반영하고, 정서적 지지는 교육적·직업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관계 내 경험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의미한다.

Keller와 Whiston(2008)은 진로관련 부모지적도(CRPSS)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일반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를 개발하였다.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는 심리적 지지와 진로정보제공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eller와 Whiston(2008)은 부모진로행동검사(PCBC)의 두 요인 중 심리적 지지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진로행동을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되던 부모 지지란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함축한 용어로 사용하여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Dietrich와 Kracke(2009)는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직접 개입하는 부모 진로관련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를 개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진로관련 행동은 지지(support), 간섭(interference), 관여부족(lack of engagement)의 3가지 하위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타당함을 보고하였다. 자녀의 진로탐색과 준비를 위

해 도움을 제공하는 부모의 지지적 행동은 청소년의 진로탐색활동에 긍정적인 관련을 맺지만 부모의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간섭적 행동과 자녀의 진로에 무관심한 관여부족 행동은 진로결정장애와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에 대한 인식에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지지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들은 부모의 간섭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최근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모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진로관련 부모지적도(CRPSS)는 가장 먼저 개발된 도구이나 위기 청소년군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 이후 개발된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심리적 지지와 진로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부모개입행동만을 측정하였다.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는 전체 청소년에게 적용가능하면서 동시에 지지, 간섭, 관여부족이라는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척도라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를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이현주, 2009)가 존재하나 평균 연령 22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척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타당한 척도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에 본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편,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개입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성차이다. 성차는 전반적인 진로 발달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어온 중요한 개인차 요인 중 하나로 부모개입행동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에 대한 엄영순과 최연실(2009)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와 문은미(2011)는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정보적지지 및 어머니의 대화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직업정보수집에 대한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고등학생들에게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대한 인식에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지지를 더욱 많이 보고한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부모의 간섭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한 이현주(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진로관여행동에 따라 진로정체감 발달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부모의 관여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발달이 저해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별은 진로관련 부모개입행동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타당화에 있어서 측정도구에 반응하는 양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차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본

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측정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진로연구에 있어서 이를 고려한 연구는 상당히 소수에 불과하다(Behrend, Thompson, Meade, Newton, & Grayson, 2008). 따라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를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함에 있어서 남녀 집단에 대한 측정 동질성이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측정 동질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두 집단간 성차가 존재할지를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진로발달과 관련된 구체적 부모개입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trich와 Kracke(2009)가 개발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를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의 지지, 간섭, 관여부족의 세 차원이 국내 청소년에게도 타당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내적 일치도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진로발달에서의 성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척도의 요인구조가 남녀 청소년 각각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검증하였다.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와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역시 검증하여 본 척도의 구인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와 부모진로행동검사 및 부모애착척도와 같은 다른 부모 관련척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구인들이 적절하게 변별되고 있는지, 아울러 진로성숙도와 같은 긍정적 진로발달지표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국내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측정도구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3개의 중학교와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칙도의 연구대상이 15세에서 18세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연령대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연구에 포함하기 위하여 각 학년별로 2개 반을 선정하여 표집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5사례를 제외하고 54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학년과 성별에 있어서 유사한 비율로 고르게 분포하였다(표 1). 부모의 학력은 부의 경우 중졸 이하가 24명(4.5%), 고졸이 188명(34.9%), 대졸이 258명(47.9%), 대학원졸 이상이 69명(12.8%)이었으며, 모의 경우 중졸 이하가 30명(5.7%), 고졸이 242명(45.7%), 대졸이 213명(40.3%), 대학원졸 이상이 44명(8.3%)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풍족함이 20명(3.7%), 풍족한 편이 125명(23.1%), 보통이 342명(63.1%), 어려운 편이 49명(9.0%), 매우 어려움이 6명(1.1%)으로 구분되었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K-PCB)

Dietrich와 Kracke(2009)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다소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도 개발연구는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을 지지, 간섭, 관여부족의 3요인 구조로 보고하였다. 지지(5문항)요인은 자녀의 진로발달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행동이며, 간섭(5문항)요인은 자녀의 진로탐색과 준비에 부모의 생각이나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동을, 마지막으로 관여부족(5문항)요인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을 의미한다. 해당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는 지지행동, 간섭행동, 관여부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칙도 개발연구에서는 성별로 구분하여 신뢰도를 제시하였으며 지지의 경우 남자 .84, 여자 .93, 간섭요인의 경우 남자 .78, 여자 .72, 관여부족요인의 경우 남자 .75, 여자 .68로 보고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학년 및 성별 분포

구분		학년				전체
		중2	중3	고1	고2	
성별	남	66	67	66	69	268
	여	65	71	70	68	274
전체		131	138	136	137	542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의 번역과정은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수료생 1인과 심리학 교수 1인이 독립적으로 한국어로 번안하고 번안자들 간 합의를 통해 원문과 가장 적절한 문항을 도출하였다.

부모진로행동검사(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PCBC)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기존의 부모 진로행동 척도와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를 사용하였다.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는 부모의 진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Keller와 Whiston(2008)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서진희와 이제경(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는 총 28문항으로 심리적 지지를 측정하는 18문항과 진로정보제공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지지는 교육적, 직업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관계 내 경험에 대한 부모의 진로행동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적, 직업적 수행에 대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의미하며, 진로정보제공은 청소년의 진로관련 기술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진로행동을 의미한다(서진희, 이제경, 2009).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진희와 이제경(2009)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이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 별로 심리적 지지는 .93, 진로정보제공은 .88이었다.

부모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구분되는 개념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정한 부모와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를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애착척도는 신뢰감(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감(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감 차원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지를 평가하고, 의사소통 차원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반영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신뢰롭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소외감 차원은 부모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 등을 측정하며 이를 역산하여 사용하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소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요인의 총점으로 부모애착수준을 측정하였다. 원래 부모애착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정도를 각각 25문항씩 별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진로관련 행동척도(PCB)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로 한 번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문항을 부모님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가 보고한 검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이었다.

진로성숙도 검사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에 사용될 도구로 진로성숙도 검사가 포함되었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2009)에 사용된 설문지 중 진로·직업에 대한 태도와 진로준비행동 관련 문항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직업에 대한 태도는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을 반영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역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5점 리커트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기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1 - .89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진로 및 직업태도는 .79, 진로준비행동은 .84이었다.

분석방법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구인타당도의 검증은 원척도의 3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남녀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동등성

검증과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동등성 검증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형태동일성은 요인구조가 여러 집단에 걸쳐 동일할 때 만족되며, 측정동일성은 각 문항의 요인계수가 여러 집단에 걸쳐 동일적일 때 성립되며, 마지막으로 절편동일성은 한 잠재변인에 대해 같은 값을 나타낸 응답자들은 소속된 집단에 관계없이 해당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에서도 같은 값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절편동일성까지 확보되는 경우 잠재평균분석이 가능하다. 잠재평균분석은 측정오차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잠재평균분석에서는 한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게 된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마지막으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진로행동검사(PCBC), 부모에착척도, 진로성숙도 검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9와 AMOS 20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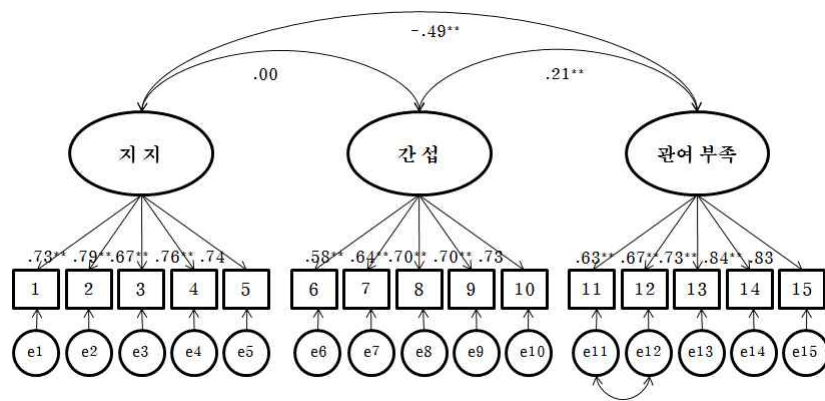
결 과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신뢰도 분석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지지는 .86, 간섭은 .80, 관여부족은 .87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각 문항과 전체 척도간 상관 역시 .53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2). 성별에

표 2.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신뢰도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항목- 전체 상관
지지 Cronbach's $\alpha = .86$				
1	부모님은 나의 직업적 흥미와 능력에 대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2.83	.80	.65
2	부모님은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해 주신다.	2.74	.87	.71
3	부모님은 내가 진로체험활동(예: 직업박람회, 진로캠프 등)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2.43	.87	.62
4	부모님은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2.98	.79	.69
5	부모님은 다양한 진로 분야의 체험 기회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2.47	.90	.70
간접 Cronbach's $\alpha = .80$				
6	부모님은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이 있고 그에 따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신다.	2.51	.90	.53
7	부모님은 나의 직업 준비와 관련하여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	2.02	.80	.58
8	부모님은 나의 미래 직업에 관해 당신들의 생각대로 이루어고 하신다.	2.04	.94	.62
9	부모님은 당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내가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하실 것이다.	2.15	.95	.59
10	부모님은 나의 미래 직업을 특정 방향으로 강요하려고 하신다.	1.80	.86	.62
관여부족 Cronbach's $\alpha = .87$				
11	부모님은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없으시다.	1.57	.73	.68
12	부모님은 나의 미래 직업 준비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1.60	.74	.72
13	부모님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 직업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1.95	.87	.67
14	부모님은 너무 바쁘셔서 나의 미래 직업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1.87	.83	.71
15	부모님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미래 직업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으시다.	1.75	.82	.71



주. 각 요인의 마지막 문항은 1로 고정되어 유의미성이 검증될 수 없음.

** $p < .01$

그림 1.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표준화계수)

따른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남자의 경우 지지 .86, 간섭 .76, 관여부족 .86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지지 .86, 간섭 .83, 관여부족 .88이었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이론적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척도에서 제시된 3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구분되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양극단으로 하는 단일차원을 반영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일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상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대신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χ^2 검증의 영가설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적합도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이 지수들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다(홍세희, 2000). 일반적으로 CFI, TLI는 .90이상일 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분석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557.048$, $df = 87$, TLI = .823, CFI = .872, RMSEA = .100으로 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으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한 결과, 문항 11번과 12번의 오차항의 공분산을 연결하는 것이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측정변수가 매우 유사하거나 부정문 등 문항의 진술방식이 유사한 경우, 수정지수를 통해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 2006). 문항 11번과 12번은 문항의 내용과 진술방식 모두 매우 유사하였으므로 두 문항의 오차항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chi^2 = 342.836$, $df = 86$, TLI = .902, CFI = .930, RMSEA = .074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표 3).

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요인계수는 .63 이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세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지지와 관여부족이 -.49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섭과 관여부족은 .20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지지와 간섭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3요인 모형-연구모형 (공분산 연결 없음)	557.048	87	.823	.872	.100
3요인 모형-연구모형 (문항 11, 12 공분산 연결)	342.836	86	.902	.930	.074
1요인 모형-경쟁모형	1670.428	89	.419	.569	.181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동등성 검증과 잠재평균 분석

다음으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없이 동일한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잠재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간 동등성 검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있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3요인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TLI 값이 .885, CFI 값이 .917, RMSEA 값이 .058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3요인 모형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남녀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태동일성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차이 값은 7.809로 .05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LI 값은 .885에서 .894로, CFI 값은 .917에서 .918로, RMSEA 값은 .058에서 .055으로 좋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있어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의미

한다.

절편동일성이 만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두 집단의 절편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절편동일성 모형을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측정동일성과 절편동일성 모형의 χ^2 차이 값은 33.761, $df = 15$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χ^2 차이검증은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홍세희, 2001)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은 모형의 간명도를 고려하는 RMSEA와 TLI를 고려하여 비교하였고 두 모형에서 이 값들이 유사한 경우 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았다(하정, 홍세희, 유성경, 2005;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본 연구의 경우 측정동일성과 절편동일성의 TLI와 RMSEA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에 따라 절편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성별에 따라 부모 진로관련 행동의 3요인의 잠재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학생집단의 잠재변수의 평균을 0으로 설정하여 참조집단으로 상정하고 남학생집단과의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집단은 간섭에 있어서만

표 4. 성별에 따른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	
						Δdf	$\Delta \chi^2$
형태동일성	479.312	172	0.885	0.917	0.058		
측정동일성	487.121	184	0.894	0.918	0.055	12	7.809
절편동일성	520.882	199	0.896	0.913	0.055	15	33.761**

** $p < .01$

표 5.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의 잠재평균 차이분석

변인	남	여	Cohen's d
지지	.067	0	.100
간섭	.229	0	.370**
관여부족	-.107	0	.157

** $p < .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잠재평균의 차이 값이 어느 정도인지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37로 나타났다.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효과크기 .30은 작은 수준, .50은 중간수준, .80은 큰 수준으로 해석된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준거관련 타당도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진로행동검사(PCBC),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6).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는 심리적 지지와 진로정보제공의 두 가지 측면의 부모진로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지지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부모애착 척도는 전반적인 부모와의 관계질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부모애착척도보다 부모진로행동검사(PCBC)와 보다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울러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세 요인 중 지지는 긍정적, 간섭과 관여부족은 부정적 행동이므로 진로성숙도와 다른 방향성의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결과,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

(K-PCB)는 부모진로행동검사(PCBC)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지지요인이 부모진로행동검사(PCBC)의 심리적지지 및 진로정보제공 모두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r = .66, p < .01$; $r = .67, p < .01$). 관여부족요인은 부모진로행동검사(PCBC)의 심리적 지지($r = -.48, p < .01$) 및 진로정보제공($r = -.37,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간섭요인은 부모진로행동검사(PCBC)와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간섭과 심리적 지지간에는 유의하지만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며($r = -.21, p < .01$) 간섭과 진로정보제공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와 부모애착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지지는 부모애착과 정적인 상관($r = .50, p < .01$)이 있는 반면에 간섭과 관여부족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4, p < .01$; $r = -.30, p < .01$).

마지막으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와 진로성숙도간 관계를 살펴보면 지지는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정적상관($r = .33, p < .01$), 관여부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r = -.23, p < .01$) 나타내었으나 간섭과 진로성숙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성숙도의 진로태도와 진로준비행동, 이 두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지는 태도와 $r = .22(p < .01)$, 준비행동과 $r = .35(p < .01)$ 의 상관을 보였으며, 관여부족은 태도와 $r = -.27(p < .01)$, 행동과 $r = -.13(p < .01)$ 의 상관이 있었다. 간섭은 태도와만 유의한 상관($r = -.13, p < .01$)을 나타내었다.

표 6.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 부모진로행동검사(PCBC),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 K-PCB _지지	1								
2. K-PCB _간섭	.02	1							
3. K-PCB _관여부족	-.44**	.16**	1						
4. PCBC _심리적 지지	.66**	-.21**	-.48**	1					
5. PCBC _진로정보제공	.67**	.07	-.37**	.71**	1				
6. 부모진로행동검사합계	.71**	-.12**	-.47**	.96**	.88**	1			
7. 부모애착	.50**	-.30**	-.44**	.77**	.47**	.71**	1		
8. 진로성숙도 _태도	.22**	-.13**	-.27**	.31**	.14**	.26**	.30**	1	
9. 진로성숙도 _진로준비행동	.35**	.01	-.13**	.36**	.35**	.38**	.23**	.54**	1
10. 진로성숙도 합계	.33**	-.06	-.23**	.38**	.29**	.37**	.30**	.86**	.90**

주. N = 542

**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Dietrich와 Kracke(2009)가 제작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번안한 15개의 척도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서울시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542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녀 집단에 따라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동일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동등성 검증과 잠재평균 분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와 관련 척도들간의 상관을 통해 준거

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는 원척도와 유사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와 요인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척도의 3요인 구조에 근거한 측정모형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이현주, 2009)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3요인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생략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구조가 지지되었으며 이는 원개발자가 제시한 지지(support), 간섭(interference), 관여부족(lack of engagement)의 3요인 구조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요인간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잠재변수간 상관 역시 원척도에서 보고된 표준화 계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

수간 상관을 살펴보면, 지지와 간섭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와 관여부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간섭과 관여부족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원칙도 개발연구(Dietrich & Kracke, 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요인들간 상관 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간섭과 관여부족 사이에 크기는 작으나 정적인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을 긍정-부정의 단일 차원으로 지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Dietrich & Kracke, 2009). 즉, 긍정적인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간섭과 관여부족을 모두 낮게 지각할 수 있고, 반면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진로탐색과 준비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주입시키거나 강요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해 관심이 없고 충분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 요인들 중 지지와 간섭간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이 두 요인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이 지지적인 것인지 간섭적인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지지를 간섭으로 지각하기 보다는 지지와 간섭이 차원적으로 구분되는 구인임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본 척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는 남녀 청소년 집단에게 동등하게 작용하며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간섭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지지나 관여부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로 선행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간섭 뿐 아니라 더 낮은 지지를 지각하였다(Dietrich & Kracke, 2009).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간섭을 지각하는 것은 부모의 행동을 지각하는데 있어서의 성차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의해 남자 청소년들은 독립성을 지향하게 되기 때문에(Cross & Madson, 1997)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을 더 통제적이고 간섭적이라고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남자 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간섭을 지각하는 것은 실제로 부모가 남자 청소년들에게 더 통제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Grotevant & Cooper, 1998). 특히, 한국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기대가 성별에 따라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더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 남자 청소년들이 더 큰 간섭을 지각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정지영, 김종남, 2011). 반면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부모 지지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동일한 척도와 동일한 연령군의 동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Dietrich & Kracke, 2009)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지지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

의 표본 특성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지 요인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와 부모진로행동검사(PCBC) 및 부모애착척도와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본 척도가 기존의 진로관련 부모개입행동척도 뿐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와 관련됨과 동시에 기존 척도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요인들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는 심리적 지지와 진로정보제공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 지지적 행동을 측정하는데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지지는 이들과 정적인 상관을, 관여부족은 부적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 간섭은 심리적 지지와 낮은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진로정보제공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섭행동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간섭행동은 지지적으로 지각되지 않으나 정보제공과 같은 도구적인 조력과 공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부모애착과의 상관에서는 지지는 정적인 관계를, 간섭과 관여부족은 부적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현주, 2010). 부모애착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반영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 같은 결과는 지지가 부모개입행동의 긍정적인 면을, 간섭과 관여부족은 부정적인 면을 측정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해 가지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진로성숙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지지는 정적인 상관을, 관여부족은 부적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간섭은 진로성숙도와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적인 진로관련 행동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흥미와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관여부족은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대한 동기를 제약함으로써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지와 관여부족이 진로성숙도와 각기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과 달리 간섭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이러한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원척도 개발연구에서도 간섭은 다른 두 요인에 비해 진로탐색과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Dietrich & Kracke, 2009). 반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진로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현주의 연구(2009)에서는 간섭이 진로정체성과 부적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상관계수의 크기 역시 지지나 관여부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이현주의 연구(2009)결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의 발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의 간섭은 독립성과 자율성 발달이 중요한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들에게는 부정적으로 기능하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간섭은 그 자체로서 부정적이기 보다는 진로발달과 관련된 다른 선행요인들의 효과를 조절하는 맥락적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지지, 간섭, 관여부족 세 요인은 서로 구분되는 부모의 진로개입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보인다. 지지는 부모가 자녀의 자기탐색과 직업세계탐색을 격려하고 조언하는 긍정

적 진로관련행동을 측정하며, 관여부족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을 반영하는 부정적인 진로관련행동이다. 간섭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강요를 반영하며 부정적인 개입행동으로 지각되지만 기능적으로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이러한 특성은 본 척도가 다른 기존 척도들과 명확히 구분되며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부모역할연구에 대한 활용적 가치를 가짐을 시사한다. 특히, 본 척도가 남녀 청소년 집단에 대한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은 두 집단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척도를 남녀 청소년에게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간섭을 보고할 수 있으므로 간섭차원에 대한 개인별 점수를 비교할 때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모집단인 전국의 청소년들 중에 서울지역에 소재한 청소년들로 한정하여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모집단을 좀 더 가까이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는 외국에서 연구,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한국적 상황에 알맞은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추가문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 보다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에게 개입된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제공하는 대상과 제공받는 대상으로 구분되는 도구의 특성상 두 대상이 서로 같다고 지각되었을 때 제공된 부모 진로관련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면접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가 신뢰롭고 타당한지를 검증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특히, 본 척도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주로 진로지지 측면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봤던 기존의 척도들과는 달리 부모 진로관련 행동을 지지, 간섭, 관여부족의 다차원으로 조명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진로관련 부모개입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녀 청소년 집단에 대한 측정 동등성을 확보하고 성별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권혁본 (2001).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이 초등학교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 (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중운, 강정임 (200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이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3), 121-135.
- 김지현, 김계현, 유정이, 황매향, 노경란 (2007). 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연구_커리나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목경수, 구자경 (2012). 고등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119-1139.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은혜 (2007). 자기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 박효희, 성태제 (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53-2167.
- 선혜연 (2009).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파주: 한국학술정보.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63(4), 605-615.
- 엄영순, 최연실 (2009).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97-224.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주희, 문은미 (2011).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1), 173-188.
-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 이현주 (2009).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5(3), 79-102.
-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1), 41-59.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 정, 홍세희, 유성경 (2005).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05-12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 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홍세희 (2006). 최근 상담심리연구의 동향과 연구방법론. 한국상담심리학회 동계학술연수 자료.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Altman, J. H. (1997).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family experiences. In Farmer, H. S. (Ed.), *Diversity and women's career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Thousand Oaks, CA: Sage.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L. W., & Hoffman, M. L.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ehrend, T. S., Thompson, L. F., Meade, A. W., Newton, D. A., & Grayson, M. S. (2008). Measurement invariance in careers research: Using IRT to study gender differences in medical students' specialization decisio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 60-83.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98). The role of family experience in career exploration - A life-span perspective.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8, 231-258.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198-217.
- Kracke, B. (1997).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4), 341-350.
- Mortimer, J. T., Zimmer-Gembeck, M. J., Holmes, M., & Shanahan, M. J. (2002). The process of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Pattern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3), 439-465.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57-274.

- Oechsle, M., Maschetzke, C., Rosowski, E., & Knauf, H. (2002). Abitur und was dann? Junge Frauen und Männer zwischen Berufsorientierung und privater Lebensplanung [Abitur and then? Young people between career choice and future private life]. *Zeitschrift für Frauenforschung und Geschlechterstudien*, 20(4), 17-27.
- Phillips, S. D., Blustein, D. L., Jobin-Davis, K., & White, S. F. (2002). Preparation for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view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202-216.
- Phillips, S. D., Christopher-Sisk, E. K., & Gravino, K. L. (2001). Making career decisions in a relational contex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2), 193-214.
- Schultheiss, D. E. P.,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M.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2), 216-241.
- Turner, S. L., Allimen-Brissett, A., Lapan, R. T.,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 83-94.

원고접수일 : 2013. 0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3. 11. 28.
최종게재결정일 : 2013. 12. 02.

Validating the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Ahra Cho

Seong Keun Yoon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Dietrich & Kracke, 2009) in Korean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542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liability tests, and a multi-group invariance test by gender were conducted. In addition,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with the 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Scale. The results supported the 3-factor structure of support, interference, and lack of engagement proposed by the original measure. Internal consistency also indicated that it was a reliable instrument. A multi-group invariance by gender was satisfied, and a latent mean analysis showed that male adolescents perceived greater interference than female adolescents. Correlation with other parent-related measures indicated that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reflected parents' intervening behaviors targeti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and measured dimensions that would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instruments. Career matur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support and negatively to lack of engag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interference was insignificant.

Key words :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valida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ulti-group invariance, latent mean analysis